

서울 금불대 불교학과·법사과 각각 67명 수료

서울 금강불교대학이 2014년도 졸업생 134명을 배출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학장 월도 스님)은 2월 1일 오후 5시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 학장 월도 스님, 서울 명락사 주지 덕해 스님, 이봉춘 전대불교문화연구원장, 졸업생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수료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불교학과와 교법사과 각각 67명이 학사모를 썼다.

전대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배움은 깨달음의 과정이고,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혁신해 가는 힘"이라며 "여러분이 금불대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야 한다. 지혜는 곧 자비로 드러나는 것이니 여러분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세상이 보다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학장 월도 스님은 "여러분

관문사서, 2014학년도 수료식 봉행



의 졸업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전대종과 불교역사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파해 주길 바란다"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더 큰 배움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봉춘 전대불교문화연구원장

은 축사에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금불대를 졸업한 천태불자로서 천태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불교 전체·세상 모든 생명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료식에서는 교법사과 강대동·이종은·김경자 수료생이 총무

원장상을, 교법사과 성무량·신정희 수료생과 불교학과 문재학·송승자·방인규·김정화 수료생이 학장상(신행상)을, 교법사과 황정미 수료생 등 2명과 불교학과 현영희 수료생 등 2명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8명의 수료생이 모범상을 55명의 수료생이 개근상을 받았다.

수료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덕해 스님) △학사보고(진철 스님) △상량주어 △교법사증서 수여 △상장 및 상품 시상 △학장축사 △법어 △축사 △장학기금증정 △선물증정 △축가(금강합창단)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 금강불교대학은 1983년 서울 성릉사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관문사가 낙성된 1998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개교한 이래 불교학과 2985명, 교법사과 1004명을 배출했다.

조용주 기자

지 상 설 법

배려하는 마음, 세상을 바꿉니다

요즈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땅콩 회항사건'을 비롯해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게 한 백화점 모녀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갑질'의 행태를 보여준 단면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내 입장에 서만 생각해 행동하다 보면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을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처신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깊이 성찰하고 고쳐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한 개인에게 책임이 묻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공공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남들에 대한 배려를 기울이지 않아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작은 문제도 양보없이 대처하다가 원망과 분심이 커져 결국 풀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칼을 휘두르고 주차사비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는 다른 이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을 가리고 있던 사람이 다가와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이 장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왜 등불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기에 들고 나왔지요."

장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그



전태종 운 덕 대종사

네에게 갈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장님의 마음은 등불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장님과 같은 이 같은 행위를 좋은 공덕을 만든다고 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위는 연기론에 입각한 업보설과 직결됩니다. 지은 행위가 또 다른 행위를 낳는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업보설은 불교의 세계관을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농사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부지런히 짝을 틔우기 위해 노력해야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다는 논리가 곧 선인선과(善因善果)이며, 그 반대의 처신과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나쁜 결과가 악인악과(惡因惡果)입니다.

행위에 대한 부처님의 인식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잡아함경> '영군특경'에서 "사람은 출생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성자가 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신분과 지위의 여하를 떠나 천한 행동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남을 앞세우는 배려심은 고결한 인품을 돋보이며 그 주변마저 널리 향기롭게 합니다.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서거정(1420~1488)이 쓴 <필원잡

기(筆苑雜記)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정 유관(1346~1433) 정승은 흥인문 밖의 작은 초가에서 살았는데 비오는 날이면 비가 새서 우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딱한 자기 사정은 에둘러 외면한 채 부인에게 "우산도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살지"라고 능청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임금이 그의 집에 갔다가 울타리가 없는 것을 보고 선공관에게 말해서 몰래 울타리를 둘러주라 일렀습니다. 유관이 청렴하여 사양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아들 계문이 집을 자못 높다랗게 짓자 당장 헐어 고쳐 짓게 했습니다. 집 없고 헐벗은 사람한테 죄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부터 100년 뒤 병조판서를 지내던 이희경(1516~1579)이 유관의 옛집을 짚으로 이엉을 잇는 등 소박하게 고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소박하고 누추하다고 말하자 이희경은 "그래도 우산에다 비하면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탄복했습니다.

이들은 이웃과 어울릴 줄 아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날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덮고 함께 더불어 웃음을 나눌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몸짓과 행동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나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의 행복과 불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현대사회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당신의 인품을 가누는 기준이 됩니다. 배려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불자 여러분이 앞장서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미소가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무척 반기실 것입니다.

화제의 인물

"배우는 즐거움에 우애도 깊어져요"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세 자매라면 어떨까? 세 자매가 함께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을 만나러 2월 1일 서울 금강불교대학 졸업식을 찾았다. 졸업식이 열린 관문사는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한쪽에서 서로 꼭 붙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세 명의 불자가 보였다. 바로 금불대 동문인 박덕임(64), 박덕남(60), 박덕분(57) 자매였다. 첫째 덕임 씨는 이날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교법사과 1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둘째 덕남 씨와 셋째 덕분 씨는 올해 불교학과 2학년에 올라간다.

덕임 씨는 10년 전 자녀를 때문에 서울로 올랐던 후 관문사와 인연이 돼 법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덕임 씨는 과거 주위 사람들이 불교와 절에 관해 질문할 때마다 '그냥 부처님 전에 가서 공들인다'라고 추상적으로 설명

서울 금불대 재학 중인 세 자매 안거·봉사활동 등 목표도 세워



◇서울 금강불교대학에 재학 중인 덕분·덕남·덕임 세 자매(왼쪽부터).

했다. 이런 본인의 모습을 보며 문득 불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금불대를 알게 됐고, 경제활동 대신 불교공부를 택했다. 덕임 씨는 "나이가 젊었다면 돈을 좇았겠지만, 예순이 넘었기에 과감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입

학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동생들은 덕임 씨가 불교대학에 다니며 지식을 쌓고 신앙생활이 변하는 것을 지켜만 봤다. 그들도 과거 언니처럼 경제활동에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덕임 씨의 신앙심은 이론을 바탕으로 더욱 깊어

졌다. 마침내 지켜보기만 하던 동생들도 경제활동을 뒤로하고 덕임 씨를 따라 금불대에 입학했고, 덕임 씨도 적극 찬성해 그때부터 세 자매의 대학생활이 시작됐다.

덕임 씨는 공부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관음정진하는 마음자세가 바뀐 것.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입으로 말했다면, 지금은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깊이 있는 관음정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천태불자로서 불교대학에서 지식을 쌓으니 항상 즐겁고 당당해진다"며 "살아온 날들 중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세 자매는 앞으로 "함께 구인사 한 달 안거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껏 우리가 배운 내용을 알려주고, 힘닿는 데까지 사찰·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용주 기자

대한불교천태종 제 98차 정기 종의회 개최 공고

제 98차 정기 종의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 기 : 2015년 3월 24일 ~ 3월 26일(3일간)
2. 개 회 : 2015년 3월 24일 오전 9시
3. 장 소 :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삼보당
4. 문 의 처 : 종의회 사무처 (043)423-7100 (교) 202, 298

불기 2559년 2월 일

대한불교천태종 종의회 의장 이 문 덕